

# 학생회보

제3호      위싱턴주 한국학생회      1973년 3월  
SMITH HALL Rm 31. U of W

吾人是 軍國的 野心의 犠牲이 되었다.  
實로 日本이 朝鮮에 對한 行爲는 史기 未 有의 所  
出한 것이니 如此 偉大한 史기의 成功은 何에  
興亡史의 特筆할 人數의 大恥辱이라 하리라.  
日本의 武器의 희생된 人 不知其數이며 十年間  
獨立을 회복하려는 運動으로 희생된 者 亦 數  
十萬이며 苛酷한 憲兵 政治下의 手足과 口舌의  
箱制를 당하면서도 連히 獨立 運動이 絶한 적이  
없으나 此를 圖하여 "韓日合邦"이 조선 民族의  
意思 內容을 可知 할지라.

吾族은 一兵이 無호리라. 吾族은 兵力으로  
日軍에 抗拒할 實力이 無호리라. 然이나 日本의  
만일 吾族의 正當한 要求에 不応할 진대 吾族은  
日本에 對하여 求遠히 血戰을 宣하리라.

(在日本 한국 유학생의 二·八 宣言文의 일부)

### 3.1 절 기념식

금년도 3.1 절 기념식이 3月1日 오후 7시 30분 HUB 309A 에서 개최 예정 인데 Western Michigan 대학 역사학 교수 남천우 박사의 특별 기념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梨花 동창회 歐美公演團 방문

오는 3月24日 (토요일) 오후 7시 HUB 대강당에서 이대 동창회 극회로 "음악과 춤의 밤"을 개최 예정인바 이 공연에는 이국도 (소프라노), 이영애 (알토) 교수등 8명의 공연단이 베를린을 순하는 독창, 한국교원무용, 가야금, 플루트, 피아노 독주 등이다. 초대권에 관한 문은梨花 동창회 (BA86211)나 학생회장에 이를 해 주시기 바람.

### 배구 대회 성료

학생회 극회 인문사회, 이공계 대학 배구 대회가 예정대로 지난 2月17日 IMA 에서 전석 및 응원단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바 양팀 2승으로 끝난 마지막 셋트에서 시안과계상 승부를 가리지 못하리 공동우승으로 낙착.

### 한국 학생을 위한 사진 강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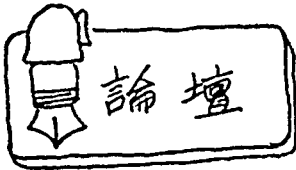
한국 학생을 위한 사진 강습이 3月18日 (일요일) 오후 7시 30분 St. Peter Claver Center (1608 East Jefferson)에서 열린다. 사진 필름, 현상, 확대에 필요한 재료는 일체 무료로 제공된다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Mr. Steve Suzuki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Phone 587-6952 (Office), LA3-7503 (Home)

### ASUW 불회보 제작비 보조기금

유심현 대학 학생회는 불회보 제작에 소요 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결정.

### △ 이 소식 귀 소식 ▷

- 이 윤미 양 ... 지난 2월 7日 피아노 독주회를 성황리에 끝내고 계속 중진중.
- 이 청행 형 ... 지난 2월 22일 음악대학 강당의서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피아노 리시이틀에서 유감 없이 발휘하여 갈채를 받았음.
- 김 홍기 형 ... 축하를 받고 싱글 병글.
- 이 양림 형 ... "스무살 기별은 뒤 집프가 열이서인 보니 미흡할" - 배구 연습중 발목 부상. 속히 쾌유 하시기 바랍니다.
- 윤 승영 형 ... 1作 論文을 마치시고 3月 15日경 귀국 예정.



대화에 여는 문제권과 해결책

김 실동

가정에서, 친구들 속에서, 학교에서, 교포촌에서 혹은 직장에서 대화란 필요불가결한 활력소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대화속에서 직장의獲得으로 부끄러운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설이 된다. 대화에 관여하는 주인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나 필자는 대화에서 실현적이며 또 필연적으로 개개인이 취하게 되는 主体同一性과 태도에 관하여 약술하려고 하는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아무개가 건방지다"

"목사님께 어떻게 그런 태도로써 말씀하느냐?"

"왕명의 자씨가 도도하다" 이외에도

결손한 태도, 까부른 태도, 실없는 태도, 미친 태도 등 셀수없이 많이 있다. 하기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태도 표시들은 원만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결손한 선량, 까부른, 실없는, 미친, 건방진들 이라는 主体同一性의 근거를 두는것이 常例이다. 따라서 "... 태도" 와 "... 놈" 의 관계를 살펴서 보면 문제점들과 해결점들의 실마리가 될것 같기에 문제를 써가서 유도해 보려고 하는것이 필자의 論理이다. 예를 가지고 始作해 보겠다.

대화에 있어서 다음의 두경우는 누구나 보아서 다 알수있고 曲解의 여지가 작기 때문에 一般관계에서 큰 열려가 없다.

첫째, 미친놈이 미친태도를 취하는것은 당연하고 누구에게나 그침이 처한 가여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에 당사자는 대이할수 있으므로 理解가 가여 따라서 曲解의 여지가 작다.

둘째, 누군자가 알쏭달쏭한 쫓가 알쏭달쏭한 태도를 취하는것은 명실공히 또 명약판화하게 알쏭달쏭. 따라서 대화의 당사자에게 "알쏭달쏭"이란 가여를 확실히 던져 주었으므로 또 그 당사자는 충분한 대어가 가능하므로 所謂 정말 "알쏭달쏭"한 쫓는 無害이다. 그러나 다음에 따르는 두경우는 문제들이 우수수 일어난다.

셋째, 도둑놈이 분명한데 아서라고 하거나 알쏭달쏭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침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틀리게 가지거나 올바르게 가지 못하므로 本意이 틀린 討論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알쏭달쏭한 主体同一性을 가진 쫓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보이는 경우 (진짜로 보이지만 사실 진짜가 아닌 경우나 가짜인 경우)에도 셋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本意 아닌 대화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상의 네 경우를 간단히 추려 도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主体同一性

	分明	不分明
태도	分明	첫째 경우
	不分明	셋째 경우
		둘째 경우

向題가 양고 싸움이 일어라가 된다.

向題가 열로적이고 남에게 책임을 주지 않는다.

특히 셋째와 넷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문제들이

해야 한다.

"저사람이 선생인지 학생인지 태도가 분명치 않다"

혹은 "저친구가 목사인지 장사꾼인지 알쏭달쏭하다"

이런 되면 처갓문을 하는 당사자도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  
할지 모르게 되어 터군다나 보통의 경우에는 주위인  
대화를 성공적으로 혹은 목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말자가 그 사람을 "어라 알쏭달쏭하니 학생으로  
용이러", 또는 "장사꾼으로 여기고 이야기 하느수밖에  
없었다". 하고 고안 틀라에 그 사람의 主体同一성을  
창조해 내보인다. 그 사람의 主体同一성을 창조한  
말자는 강사자로서 "할수없이" 혹은 "그자를 알아야  
이야기가 되니까" 라는 불가피한 理由로서 그 사람을  
인식적으로나 영구적으로 "... 하는사람" 이라고 주입해  
버렸으니 不安하고 不安定된 대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내는 결과가 된다. 또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장사  
꾼이 아닌데" 혹은 "학생이 아닌데" 나를 당사자가  
그렇게 몰아 버리니 기분이 상하게 되고 더욱이  
"아!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보다니 ..." 하고 분개하고  
나아가서는 이능, 저능, 개새끼, 不共待天 이란  
등의 낭만적인 문구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필코는  
한판 물어보기 직전인 냉전의 마당으로 가고만다.  
어쨌든 셋째와 넷째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과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하는것이 분명히  
들어왔고 아울러 불분명한 主体同一성과 태도들  
이 여과여 있어서 항상 주의관계 살펴쳐야 하는  
것도 분명해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원칙적으로 보아 대화에 관한 자기가  
셋째나 넷째의 경우에 속한다고 판단 (상대방의  
태도나 응답으로 판단이 가능할) 하면, 자기자신을

첫째나 둘째의 경우에 속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主体同一성이나 태도가 뚜렷한 사람끼리의 相反은  
계약이나 이해조정이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다.) 둘째, 자기나 남의 同一성을 여러면으로  
확인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 비록 同一성을 안다는  
것이 시간과 장소와 직접, 간접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질  
당정 장기한 신중하게 또 여러종류의 환경속에서 찾아낸  
同一성 일수록 확인의 강도가 높고 또 정확한 판단이  
보다 더 큰 덕을 한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란 이는 그와  
꼭해,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가  
서로의 同一성을 보려려 분명히 알고있느려 있었을것이다.  
셋째, 지금 현재 냉전의 상태에 있으면 그 당사자들은  
싸움의 원인이 주로 자기와 他人의 불분명한 主体同一  
성이나 태도에 기인된것으로 빨리 자각, 각성하고 대화  
의 길을 분명한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同一성을 확실히 조건 하는 리에는 그 쟁점이나 目的의  
관련 모든 자신의 同一성들 예컨대, 직업, 신분,  
가족, 교육등의 同一성들 모두 분명히 相手方에 들어  
나르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 누구나 셋째의  
경우와 넷째의 경우에 처해야 할 경우와 때가 불가피  
하게 있음으로 인한 同一성의 창조까지 불분명한 태도  
가 항상 우리주위에 일어난다는 뜻을 저심 인식하고  
이런 경우나 때가 오지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소의 데까지 저지한 해결책이 따르면  
총인이 "自己的 영상"을 풍기는 人尙이 될것이며  
그리하여 "Image 를 주는 人尙"이 되면 남들이  
만나고 싶고 또 동경하는 처갓물이 되는것이  
아닐까?! (사회학과)



### 전 공 순 례 ③

(요업공학)

오 근 호

공학공에서도 "요업공학"은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공학분야인것 같다. 전공을 취하려는 불음에 요업공학을 한다고 하면 으레 뭐요? 하고 반문한다. 얘는 두서너번 답을 해주어야 그런것도 있나 하면서 이전 미안해서 티끌어보기가... 식언하지 않은 표정으로 끝나기가 일수이기 때문이다.

미국 요업학회에서 요업을 정의하기를 "비금속 물질 그리고 그의 제품"은 요업이라 했다. 그런얘기는 그만두고 더 쉬운 예를 들면 우리일상생활 의, 식, 주에서 "식"을 하기위한 그릇 (금속과 plastic을 제외) 그리고 "주(住)"에 있어서 거의 모든 재료를 요업이라고 하면 저래식 요업으로써 거의 틀림없겠다. 우리일상 주위에서는 보지않는것이지만 수백도 때로는 수천도 고온에 견디어 금속을 녹이고 가공할때 쓰는 용광로의 재료가 또하나의 예가 되었고, 수만 때로는 수백만 "볼트"의 전기를 차단시킬수 있는 오직 물질이 요업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차대전때 미국이 일본한테 이긴 많은 이유중에 하나로써 쇠나 알루미늄을 가지고 자르고, 깎고 갈아서 대포, 탱크, 전함, 비행도 만드는데 그걸 자르는 속도가 미국이 일본보다 훨씬 빨랐다고 한다. 쇠를 자르고 깎을수 있는 물질로 미국은 좋은 요업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저래식 요업을 크게 분리해보면 다음과 같겠다. 유리, 시멘트, 도기, 자기, Structural clay products (벽돌, 타일등), 내화재, 연리지 기타. 필자가 유학수속을 하러 다닐때 하주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깨지지 않는 유리"를 공부하러 수속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친구얘기가 "그저 너가 깨지지 않는 유리를 만들면 나는 또 실업자 되끼? 간신히 일주일 전에 유리 도매상이 취직이 났어!" 유리가 잘 깨져야 이런 사업이 잘되는지 깨지지 않고 튼튼한 유리야만 사업이 잘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 거의 모든 요업이 잘 깨지는 결점이 있다. 우리상식적으로 망치로 쳐서 깨지지 않는 찻잔이 어디있겠는가? 이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고 그노력의 댓가로 New Ceramics로 "Pyroceram" 이 등장했다. 이것은 우리일상생활에서 쓰는 Pyrex나 더 나아가서 Corning ware 가 그예가 되겠다. 현재 모로코사에서는 잔수함의 전 body를 요업체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있다. 어뢰를 뚫어도 튼튼하고 저수의 고압에는 바위덩어리 같이 튼튼하다고 한다.

New ceramics로 다른 예를 몇개 더들어 보겠다. 원자로의 원료가 있어서 처음에는 금속원료를 썼었다.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도와 효율이 극 저조하여 원자로 발전에 적신호를 주었다. 그 원료를 Ceramic으로 가공한 후에는 많은문제를 해결해 주었을뿐 아니라 여기하지 않았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왔다. 한 과학자 얘기가 "Computer는 인간의 노력으로 창조해낸 가장 큰 product 중의 하나라 했다". Computer의 electronic circuit 나 Crystal 의 전부가 New Ceramics 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 set 나 플레이어는 Hi-Fi 의 모든 electronics 가 ceramics로 바뀌어

재있다. 하늘을 나는 jet기의 Nozzle은  
 개발것도 없고 기체 자체 까지도. 그리고 달을 왕복  
 하는 'Apollo 선'의 많은 part가 New  
 Ceramics 인 Ceramic nitrides 나  
 Ceramic Carbides 로 되어있다. 앞으로  
 Laser 의 이용가치는 무궁무진 하다고 한다.  
 Laser를 내거하는 Crystal이 거의 전부가  
 New ceramics 이다.

New Ceramics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다. Fibre glass 그리고 Ceram-  
 ic fibre 가 그것이다. 습윤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마루리(다마)에서 실을 짜내려  
 1실로 짜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실용도가 급속도로 진전해 가고 있다. 하루는  
 딸자가 wife 와 같이 drapery를 사러나간  
 일이 있었다. 호화롭게 생긴 Drapery 중에  
 Fibre glass 가 있어 요염 공학으로서는 감개  
 무량했다. 언젠가는衣食住의衣까지도 요염  
 으로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한 학자가 인류역사를 재료학상으로 관해서  
 석기, 청동기, 중금속, 경금속 시대로 구분하고 우리  
 현안은 경금속 시대라 했다. 그 의미는 청동이나 중금속  
 을 병행하며 쓰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경금속  
 이라 말어진다. 미국의 구리의 매장량은 거의 바닥이  
 났고 또 언젠가는 그와같이 세계의 금속 매장량이  
 고갈 될까가 울지 모른다. 요염의 원료는 무궁무진  
 하고 막말로 어떤 흙덩어리나 바윗덩어리도 좋은  
 요염 원료가 될수 있다. 그렇기 더져보면 재료학상의  
 인류역사 구분에서 경금속 시대 다음에는 요염시대가  
 (1) 될것 모르고 흙이나 돌을 원료로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품을 충당한다면 modified 된 석기시  
 대 얘기할수 있었고 역사의 순환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볼수있었다.

한국의 운명과 Ceramics 는 어떠한가  
 보자 지금부터 약 7-8 년전 얘기다. 그 당시 일본이  
 세계 시장이 "도자기공업" 하나로 번 수출액이 2억  
 불 정도였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료는 한국  
 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다. 한국의  
 어느 해안에 꼭 원유가 나오기를 우리 삼천만 명이  
 기원하는 것이고 그때는 사정이 달라 자갓지만  
 한국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 주원료는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한국의 요염공학에 있어서 주원료  
 를 포함한 많은 원료를 자급자족 할수 있고 그 원료  
 도 풍부하고 질이 우수하다. 한국 공업화에  
 있어서 이것은 꼭 간과되 있었으리라 믿고 싶다.

미국의 1960년대 GNP를 보면 그중 30%  
 이상이 Ceramics Industry 와 연관이 되  
 있고 미국강철생산의 가장 중요한 cost 중의 하나  
 가 내화재로 알고 있다.

지금 미국 대학 수준의 "요염공학"은 도자기를  
 굽고 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요염물질 자체의  
 반응과 성질에 관한 기초학을 중점 두고 있다.  
 요염을 풍부하다고 그려자기 운운하고 질론 받으면  
 아주한대다.

(11 페이지의 계속)

무슨 일이나, 아무리 비민주적이고, 반자위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된다」 의식에 의해 실현화  
 될수 있는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日本 -  
 이 나라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  
 해야 할가? (동경에서) (정치과)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 기묘기상 —

한사나카 내동대명이 처진후  
시상은 말이 없었다.

그사내는 줄기차게 찾았었다.

그것은 흐르는 것으로 아닌

귀어있는 것으로 아니었다.

줄고 나쁜 것이 의없는 두눈은 수의 「원죄」였다.

변하는 것은 신령이었다

그림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었다.

그것은 無形도 有形도 아닌 실체속에 실체였다.

왜 그림을 지탄의 바늘은지 왜 그림을 지탄의 바늘은지.  
왜 그림을 지탄의 바늘은지 왜 그림을 지탄의 바늘은지.

"레조에는 구별이 있었을까?"

그래서...

"왜 말이 없었어...!"

「원」속의 「원」은

「원」자는 의미가 없었다.

본자가 필요했어. 그대르가 총알아. 8

「無我」속에서 「自我」를

다시 「無我」를

「상황」속에서

「절대」를

찾았었다.



# 日本人의 史意識

李正鶴

원래 「日本印像記」라는 제목으로 원고청탁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東京에 체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東京을 보고 日本을 論하는 것은 서울을 보고 韓國을 論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기 싫다는 우려음이 앞선다. 그렇다고 해서 東京印像記를 쓰고 싶지는 않다. 東京의 外形에 대해서는 "서울과 뉴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大都市(마천루는 빼어만)"라는 한마디 表現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東京이 日本인에 對해서 아직 확고한 인상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쓰려는 문제는 日本 政體 變遷의 根本이라고 하는 丸山眞男氏가 闡明해 놓은 日本인의 史意識 論을 中心으로 나대르의 정리를 시도해 볼까 한다. 日本에 와 있음으로 日本에 對해 뭐가를 시이들이 關하고 싶다는 의무감에서 이 글을 쓴다.

丸山氏는 日本 史의 어느 時期에 있어서도 그 底流에 흐르고 있는 意識이 있고, 이 意識은 古代로부터 近세에 이르기까지 變遷하지

않고 지속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丸山氏의 「만능」은 史意識 과는 달리 史는 「된다」 혹은 「되어간다」라는 意識이다. 丸山氏들이 史를 어디까지나 人間이 主體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認識해 왔다면 日本人들은 史를 主體가 없이 自然的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意識이 日本人의 日常 生活, 小説로부터 政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면에 나타나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日本의 國語 學者인 大野晉氏의 著述이 의하면, 大東亞 會議에서 「이렇게 하였읍니다」라고 보고하면 곧 議語가 返出하나 「이렇게 되었읍니다」라고 보고하면 별 問題없이 承認이 答復이 된다고 한다. 作家인 中村眞一郎氏는 日本 近代 小説의 主人公이 대체로 人事를 主體적으로 선택해 보다는 時流에 따라가는 人物로 묘사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日本 近代 小説의 代表적 作家的 하나인 細雲의 主人公은 자기 運命을 相처 運처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되어가는 사내의 自己의 運命을 밝히려는, 이것은 바로 「된다」의 意識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丸山氏는 東京 戰犯 裁判을 근거로 해서 軍國主義 時代의 日本 政體 振興 策들이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의식보다는 오히려 日本의 自위 自強에 戰爭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著書인 石田 雄雄氏는

日本政治에 있었던 「해득행담」이라  
던가 혹은 「二十一世紀는 日本의 世紀이다」  
등의 선거구호가 이러한 정책을 세  
우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구경이 지나지 않는 데 지적한다. 다시  
하여 이 모두가 밑바닥에 깔린 의식은  
「된다」 의식이라는 것이다.

2

丸山은 1930년대 이후 日本人是  
이 軍國主義의 政策을 執行한 것은 이 「된다」  
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었음  
이다」 하면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군주회의 참석자들은 마찬가지로, 日本  
군은 「이런 戦争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보고  
를 아무 의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日本군은 露露의  
대수, 만주사변, 국제연맹 탈퇴, 中日戰,  
三國同盟, 大政翼賛會, 그리고 최후에는  
太平洋 전쟁의 이르기까지 모든 事件을  
누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되치  
못한 史의 所當然으로 받아들여, 이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일어난 事件을 所當然으로 인정하고 이에  
응답하는 태도는 一般 國民에게 형성된  
것이 이념을 丸山은 다음과 같은 예에  
서 찾는다. 즉 東条內閣의 外相이  
있던 東郷에게 三國同盟 贊成 否 問  
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나의  
私인 意見은 이에 反對 했으나 모든 事件  
은 그것대로의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 前의 堅固한 政策이 一 日 기성

사실화된 이상이는 이것을 반영시키는 것  
은 간단한 것이 이념으로 동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3

나는 이러한 「된다」 의식이 日本  
에게 있음을 인정하지만, 史의 主體  
가 史의 主體로 이를 배경한다. 그것은 史가  
自然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인위적  
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명백하기 때  
문이다. 어떠한 事件이든 그것은 만들어  
낸 주체가 있다. 그 主體의 担当者  
이 그 事件을 만드는 데 직접 참가하지 않  
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었다고 설득시켜  
주는 것이 日本 史의 過程이 아니었다가 생각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득은 그것이 日本  
國民의 史의 意識으로 論述될 정도로  
성공을 거둔 게 아닐까?

史의 主體의 担当者들이 무엇때  
문에 日本 國民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되  
는 일」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는 일」이 「되는 일」로 둔갑  
할 경우, 그 둔갑이 갖는 이해요리학적  
기능 때문 인지도 모른다. 첫째 「하는  
일」이 「되는 일」로 될 때 이는 그 事  
를 할 수 없는, 물론 그 事 間에 피  
치 못할 일로서 合理化 된다. 둘째,  
「되는 일」로 설득을 받는 측은 그것을 누  
가 한다고 할 때 나타났을 수 있는 후자의  
기세나 승리감으로부터 받는 긴장은 누  
까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마음의 자세  
에서 이 일을 지지할 수 있다.

되는 일' 인으로 너,나 할것없이 누구나  
 에 동조한다. 세째, 역사가 '되는 일'  
 인 인식될 경우 이 역사를 '만드는' 최후  
 그 결과로 잘못되더라도 용이하게  
 책임회피를 할수있다. 日本에 있어 軍  
 國時代之의 支配력이 아직도 그대로 支配  
 의 座에 앉아있는 것은 이와같은 '된다'  
 의식에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주요한 때문  
 이 아닐가?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있어  
 파시스트는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에는 파시스트 체제 건  
 설에 적극적으로 있던 관료들이 전후 日本  
 의 政界를 주름잡아 왔다. 戰犯의 劣인  
 이 찍힌 사람이 首相을 역임하는 정도  
 까지 日本 政界는 지속성이 있다. 財界의  
 影響도 나찬가지이다. 新營사업체도  
 방지만 軍國주의 시대에 활약하던 미쓰  
 비시, 미쯔이, 스미토모 ... 등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 침략전쟁의 大過를 범한 자  
 들, 혹은 그들의 徒弟들이 아직도 日本을  
 움직이고 있음은 그들의 '된다' 意識을  
 가진 국민으로 부터 養育을 면제 받았기  
 때문인가?

4

丸山氏가 '된다' 意識이 갖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보물리가 없다. 그렇  
 다면, 그는 왜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본질적 파악을 방기하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國民에게 선전하는  
 '된다' 의식의 규명에 열중해 왔는가?  
 이것은 日本 파시즘에 대한 그의 수치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수치감이 그로 하여금  
 戰時時代之의 日本 지도자들도 '된다' 意識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게끔 동기를 부여한  
 것 같다. 그러나 戰犯들의 자기 변명인 裁  
 判記録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도 '된다'  
 意識이 있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우리가  
 아닐가? 그가 이 意識을 찾아내는 또  
 하나의 資料는 日本 政治 思想史이다. 그  
 러나 政治思想이 그 時代之의 政治를 具  
 體化하는 主要構造의 面이 變하는 것을  
 인정할때, 이것도 日本의 지배층이 '된다'  
 意識을 가져왔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특히  
 동양의 정치사상은 지배주로 합리화의 面이  
 서양의 그것 보다 많지 않은가?

丸山氏는 日帝 파시즘의 過當을  
 '된다' 意識의 산물로 칭찬하려고 한다.  
 그는 이 '된다' 意識을 바람직한 日本  
 의 正統 意識으로 주장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軍國主義 侵略戰爭을 방지하지  
 못한 요인이 이 의식이 있다고 보고, 日本  
 國民이 이 의식에서 탈피하여 合理的  
 正統 意識을 갖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現 지배층의 생각이 이러한  
 丸山氏의 생각과 같지 않음은 다음의 예  
 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家永三郎은 그의  
 日本史 教科書에 '日本 軍은 北京·漢口·広  
 東 등을 차례로 점령하고 中國 本土에 戰線  
 을 확장시켰다.' 라고 記述 했는데, 이를 "...  
 中國 本土에 戰線이 되었다." 라고 訂正하라는  
 教科書 檢定委員의 指示를 받았다고  
 한다. (6 페이지이 계속)

◀(편) (집) (후) (기)▶

- ◆ 해방 이후 매년 년중 행사로 지켜왔던 三-월 기념식. 重要일을 지닌 기념식과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시가행진 등... 도풀이 두는 똑같은 論調의 마스크의 해설은 우리들의 감정을 새롭게 해 주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원 6번째 맞는 三-월을 당하여 三-운동의 母體라고 할 수 있는 東京 유학생들의 二·八 선언문 中 일부를 一面의 실의 유학생과 三-운동과의 關係를 생각해 볼려고 한다. 우리 모두의 나라를 생각해 걱정하는 감동공 같은 丹心이 아니다. 日本의 한국 침략의 범죄를 역사적으로 분석 관찰한 한국의 대한 일제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 植民政策을 分析하여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명백히 하는 것은 이 선언문의 오늘날 他地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삼 심각한 意味를 갖게 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 日本에 가계신 이종복 형제의 日本人에 대한 글을 보내 주셨다. 三-월과 관련하여 時宜에 적절한 글을 보내 주신 이 형제 감사한다.
- ◆ 오는 4월호에는 차츰 우리들 腦髓에서 잊혀져 가는 4.19의 意味를 되새겨 보며 오늘날 우리들의 지혜의 내일의 方向을 가늠해 보려고 4.19 특점을 크게 붙자 구상중. 여러분의 많은 財力과 참여를 재삼 부탁드린다.
- ◆ 심해한 유익한 글씨는 本報를 이변장하게 기자의 주신 노영숙씨 (우영숙 형의 부인)에게 特別한 감사를 드린다.
- ◆ 每月 마지막 금요일을 호보 제작일로 정했다. 별문근의 技術과 特別한 才能을 必要로 하지 않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重點인 이 되고 기사가 두의 공동 작품을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이번호를 마감하는 날 제작실을 찾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노영숙·우재근·이익환·윤희경)